



해 외 양 계 뉴 스

세계

가금사료 전체배합사료 생산량증 34% 차지

표 세계 배합사료 생산 실적 (1993)

미국	130
EU	115
구소련	60*
중국	45.5
일본	30.5
중부유럽	21.5*
중동/아프리카	20
브라질	17
멕시코	13
한국	12.5
캐나다	12
기타	72.5
계	550.0

*추정치

'93년도 세계 배합사료 생산량 조사결과를 보면 한해동안 5억5천만톤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가금사료는 1/3에 해당하는 1억9천만톤으로 알려졌다.

'90년과 비교해 볼때 전체 배합사료생산량이 1천만톤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는데 주 요인은 독립국가연합(구소련)의 경제사정으로 3천6백만톤이 준데 원인이 있다.

반면 개도국이나 아시아주변 국에서는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의 가금사료생산이 전체생산량의 34% 차지하는데 비해 한국은

27%로 외국보다 가금산업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

VIV Lattin American 박람회 개최 확정

브라질에서는 '96년 처음으로 VIV Lattin American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네덜란드의 VIV 박람회 주최 기관인 Royal Dutch Fairs 사를 주축으로 적극 추진되었는데 네덜란드와 태국에서 기존에 개최되고 있는 VIV EUROP, VIV ASIA 등과 함께 세계 3개 대륙에서 같은 성격으로 열리는데 의의를 갖고 있다.

VIV 박람회는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유전적인 분야에서 부터 가공된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는 것으로 잘 알려졌는데 브라질에서는 수도인 쌍파울로의 EXPO Norte에서 '96년 5월 8~10일 개최될 예정이다.



VIV 브라질 박람회 준비위원

브라질은 남미에서 최대의 고기생산국이며 남미의 90%에 해당되는 가금육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계열화사업이 정착된 나라중의 하나이다.

한편 금년에는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서 VIV ASIA 박람회가 11월 15~18일 열리게 되며 '94년 VIV EUROPE 박람회에서 59,000명의 관람객을 동원했던 네덜란드는 '97년 11월 18~21일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

가금류 제품 표기요건 강화

미국 농무부(USDA)는 가금류 제품에 대한 표기요건을 강화, 26°F(-3.3°C) 이하에서 가온처리된 제품에 대해서는 신선(Fresh)이란 상표를 부착하지 못하도록할 계획이라 밝혔다.

관련 규정안을 보면 현재 기온이 0~40°F(-17.8~4.4°C) 사이에 있거나 이전에 이 기온 범위내에서 저온처리된 적이 있는 경우에도 "Fresh"표기가 가능했으나, 현행 수정안에서는 0~26°F(-17.8~-3.3°C)에서 처리된 제

품은 "Previously Frozen"으로 표기해 차별화를 들 예정이다.

미국 정부 기준에 따르면 가금류내 빙점수준은 26°F(-3.3°C)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발표에 대해 소비자 단체에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Fresh"라는 표기에 대해 냉동된 적이 없는 신선한 가금류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관련업계에서도 가금류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규정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우간다

부화협회 발족

양계분야에 특별한 모임체가 없었던 우간에 최근 부화업자들의 등록과 양계산물의 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부화협회가 발족되었다.

이 모임은 양계업 전반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노계의 효율적 처리는 물론 양질의 닭고기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 소비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 공화국

양계 생산량 감소 추세

카자흐 공화국은 닭고기와 계란 생산량이 경제적 어려움 등 소비부진으로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다.

닭고기 생산량의 경우 '92년 15만3천톤에서 '93년에는 11만3천3백톤으로 26%가 감소되었으며 계란생산량의 경우 '92년 3억5천만개에서 '93년 2억9천만개로 17%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